

## 투표, 그리스도인의 권리이자 의무

캘리포니아 주의 각종 동성애 법안들, LA 한인타운 선거구 조정 문제, 기타 반기독교적인 법안들, 인종차별적 행태들에 대해 미국 내 소수민족인 한인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투표보다도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기도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리 포기이자 의무 불이행이다.

최근 OC교협은 라팔라 시 스티브 황보 부시장을 초청해 유권자 등록에 관해 소개받고 교회의 정치 참여에 의견을 물었다. 목회자의 자녀이자 장로인 그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할 것인가" 먼저 물었다.

그의 발표에서는 회비가 교차했다. 먼저 좋은 점은 OC 지역을 예로 들 때, 지난 10년간 전체 인구 중 아시아인은 13.6%에서 17.9%로 늘었고 한인 인구도 2.0%에서 2.9%로 늘었다는 것이다. (이하 2010 센서스 통계) 전체 아시아 인구의 성장률은 39.0%인데 한인인 57.8%이다. 가히 압도적이다. 정치권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유권자 인구가 바로 한인인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정치인들이 한인들



스티브 황보 부시장이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OC교협 3월 월례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한인교회 협력 당부

빼고는 선거를 생각하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OC지역 86730명의 한인 중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2세가 19645명, 1세가 25986명이다. 선거당국의 노력으로 2004년 유권자 등록인이 16035명에서 2012년 25010명으로 56% 가까이 경증 뛰었다. 한국어 유권자 등록양식까지 별도로 보장받게 됐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은 여전히 선

거인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도 많다는 것과 등록을 해도 투표율이 막상 타민족보다 10% 이상은 낮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이나 의견 청취, 공약에서 한인들을 제외할 수도 있다.

황보 부시장은 "한인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사회의 발전과 성도들의 운명적인 삶을 위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적극

도려해 달라"고 당부하고 "가능한 성도들이 피선거인으로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투표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는 발언을해서는 안되지만 정치 그 자체에 참여를 꺼릴 이유는 없으며 정치인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좋은 시도"라 조언했다. 김준형 기자

## 여성 목회자 권익 신장과 협력에 최우선 둘 것

###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백지영 회장 당선

3월 10일 열린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총회에서 백지영 목사가 새 회장에 당선됐다. 백 목사는 "말장진 회장직은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는 100여명 여성 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한인여성목사회에는 7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21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단체의 1대 회장은 고 박인순 목사, 2대

회장은 서드보라 목사이며 3대 회장은 백지영 목사다.

백 목사는 여성 목회자의 권익 신장과 상호협력, 원로 여성 목회자들의 처우 개선, 교제와 섬김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편, 부회장은 배순례, 지사론 목사, 총무는 김영화 목사, 부총무는 박소피아 목사, 서기는 강지원 목사, 회계는 황그레이스 목사다.

회장 이취임식은 5월 20일 주일로 예정돼 있다. 선승민 기자



제21회 총회에서 당선된 회장 백지영 목사(사진 앞줄 가운데)와 임원들

## INTERVIEW

###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 두 비전으로 달려온 19년

한 교회가 자기 교회만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어떤 교회가 8개의 지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무엇을 상상하게 되는가? 엄청난 인적, 물질, 능력을 가진 교회를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뉴라이프선교교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차세대 한인들에 관심을 갖고 있던 박영배 목사가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라는 비전에 부합되는 교회를 꿈꾸며 19년 전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 후, 남가주와 북가주를 중심으로 곳곳에 교회가 개척됐다. 이 교회들은 모두 뉴라이프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서로 연합해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이 교회가 개척하면 다른 교회들이 기도와 물질로 돕고, 저 교회가 선교하면 다른 교회들이 힘을 모은다. 모든 경우 그렇진 않지만 뉴라이프교회 부목사들이 개척에 소명을 받으면, 개척지로 파송되는 형식으로 교회 분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뉴라이프의 비전에 의거함이었다.

이 뉴라이프교회들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풀러튼 뉴라이프선교교회의 담임 박영배 목사는 1.5세대. 중학교 3학년 때 이민과 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하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깊게 체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학교로 진학하겠다"는 약



박영배 목사

속을 했는데 대학에서 복음에 소외돼 있던 한인 2세들을 만나면서 소명에 사로잡혔다. UC샌디에고에서 사역할 때는 2명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해 3년만에 그 모임이 100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산호세주립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M.Div. 학위를 받았으며 커버넌트신학교에서 D.Min. 과정에 있다.

현재 뉴라이프선교교회에는 한어권이 120명, 영어권이 150명 출석한다. 어린이까지 합하면 매주 300여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인, 백인도 있다. 최근 이 교회는 새 생전을 구매해 임당하기도 했다.

→ 2면에 계속

**TAX 문제 전문** 자산결정 및 은행권 처리, 세금계산, 세무감사대리인 IRS 행정관, 감사관, 수시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62,317	환의 \$8,218
Mr. Lamonnier, H	FTB \$118,874	환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환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환의 \$0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UBM교회 창립 1주년 및 새 성전입당 기념 특별집회**

**1차 집회 일시**  
3월 25일(일) 11:00am 이재하 교수님  
2:00pm 벤자민오 목사님

**2차 집회 일시**  
3월 29일 - 31일 (목,금,토)  
매일 저녁 7:30pm

**벤자민오 목사님**  
사랑과진리교회 담임목사

**이재하 교수님**  
중앙대학교 교목

**데이빗 켈리 목사님**  
David Thomas Kelly  
- 예언사역자 & 부흥사  
- Holy Segments 설립자

장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문의: 562-903-260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5세 목회자 중심으로 1세와 2세 하나된 뉴라이프선교교회

# 교회 개척... 힘들어도 우리의 비전, 그리고 사명



-교회가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에 상당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한인교회에 단기선교라는 말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한인들이

사하게도 우리는 2세 선교사들을 세 가정 파송했고 열 가정에 달하는 선교사들을 공동으로 협력해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2세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7년 전이었는데 당시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세들은 선교에 헌신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저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교회는 2세들을 위한 교회인 것 같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공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2세들에게 "2세들은 가족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자신과 배우자, 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도 생각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3세대가 공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2세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꿈꾸며 창립

### 확신만 있다면 2세들도 선교에 헌신

### 1세와 2세 공존하며 연합하고 협력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헌신된 일부 한인들도 선교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6년간 한인 2세 청년대학생을 위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1993년 6월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뉴라이프선교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세 선교사는 많았지만 2세 선교사는 거의 없었기에 2세들을 선교에 동원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1.5세 출신이 교회를 개척한 경우가 드물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1.5세라는 장점을 살려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 2세를 훈련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년 역사를 돌아 볼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뉴라이프'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보내고 파송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교교회'라는 이름에서 선교지향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감

는 1세대 2세대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전과 마음이 2세들에게 심겨지면 그들도 얼마든지 선교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2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은 교회가 2세들에게 단기선교를 통해 도전과 확신을 많이 주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라이프교회는 2세 교회인가요? 아니면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인가요? 그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제가 시무하는 풀러튼 뉴라이프선교교회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세대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타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차세대 2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동역하고 섬기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1세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직회나 당회를 보면 2세들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1세들이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을

-2세들이 주도하는 교회 시스템에서 갈등은 없습니까?

없지는 않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1세 2세 간 차이가 큼니다. 저도 다양한 세대를 목회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가 좀 있다고 서로 갈라 섭니까? 문화적 갈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두 세대가 분리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진 못합니다.

'서로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간섭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섬김'이 필요할 뿐입니다.

2세들은 1세들이 자신을 어린 아이 취급한다고 싫어 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다 변호사, 의사 등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성인인데 교회에만 오면 어린 아이가 되니까 그런 교회에 가려 하겠습니까? 1세들이 성인이 다 된 자녀들을 여전히 어린 아이 취급하며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려 한다면 두 세대의 갈등은 끝날 수 없을 것입니다.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담임목사가 1.5세이기 때문이 아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케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 네이비스 (310) 326-6666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종언어가 되고 양쪽의 문화를 이해하기에 양자를 잘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들 출신이기에 이런 비전이 잘 공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중 2개는 뉴라이프선교회의 회에서 아예 독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 독립된 지교회들이 한 비전 갖고 협력 앞으로도 계속 사명 감당하고파 건축하며 동시에 교회 개척하는 기적도

이것은 1.5세대가 가진 독특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라고 해도 생각이 조금만 더 열려 있다면 1.5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1.5세대들이 1세 목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5세 담임목사가 2세들을 꺼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세 담임목사가 2세 사역자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세 목회자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 주는 1.5세 목회자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뉴라이프교회들의 관계는 어떤가요?

저는 지교회들이 개척하면 그들이 독립적인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야 독립성을 갖고 서로의 사역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을 함께 하고 선교를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다른 뉴라이프 교회들이 협력선교사를 돕는 차원에서 돕고, 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지원해 줍니다. 자매교회의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 자매교회들이 뉴라이프선교회의회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리소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담임목회자들은 모두 개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이며 1년에 한번씩 만나 비전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다민족교회로 발전시켜 보고 싶은 욕심은 없으셨습니까?

한동안 많은 2세 교회들이 다민족교회를 지향하는 붐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민족교회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1세대들이 출석하고 있는 한, 다민족교회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2세대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들은 아시안입니다. 이런 민족적 한계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외에도 다양한 문화 차이가 사람들 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1세와 2세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다민족교회 모델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민족교회 모델이 잘못됐거나 옳지 않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제 목회 철학과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델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좋은 모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뉴라이프교회들은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으나 제가 시무하고 있는 이 풀러튼은 제가 1.5세기에 이 장점을 이용해 1세와 2세가 하나되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창립 19주년만에 새 성전을 구매 하셨지요?

솔직히 저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선교와 교회 개척에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6번이나 이사하게



했습니다. 결국, 보다 안정된 교회 사역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인식을 성도들과 나누었을 때 1세대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찬성했지만 2세대들은 건물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세대들은 빨리 건물을 찾아 보고 기금을 마련하자 했고 2세대들은 기금을 마련한 후 건물을 찾았고 했가 시무하고 있는 이 풀러튼은 제가 1.5세기에 이 장점을 이용해 1세와 2세가 하나되는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노력 끝에 이 건물을 발견하고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마련된 기금이 있었기에 비교적 쉽게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개척이나 분립을 하지 않으셨다면 훨씬 일찍 건물을 사실

수 있었을텐데요.

우리가 개척을 할 때 쉬운 상황에서 개척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은 우리 교회 영어목회자가 개척에 소명을 받았으며 분립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는 건물을 사기로 결정하고 온 성도들에게 발표까지 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였는데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데려 나가면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축을 중단할 것인가, 개척을 중단할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좀 개척을 늦추자"는 말이 목 밑에까지 올라 왔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믿고 개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개척을 하겠다고 미리 말했으면 교회 구매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교회 구매를 결정한 후, 소명을 받은 것도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우리 교회 2세 200명 중 50명이 그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담임목사 입장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개척 예배에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2세대들이 와서 그런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교회가 갈라지면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싸우는 통에 자녀들인 자신들도 원수가 되어 얼굴도 보지 못하게 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축복을 나누며 교회를 분립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이것이 큰 도전이고 감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며 이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역이란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물론 기적적으로 무사히 구매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와 함께, 우리는 어쨌거나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에 비전을 두고 설립되었고 성도들 역시 이런 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개척을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8개를 개척했는데 앞으로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교회를 분립, 개척해 나가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동부사인&트로피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목(경부)**

목근육의 긴장을 풀어, C 커브가 되게 합니다. 학생, 사무원의 거북목, 목디스크 예방합니다.

**통상부**

같은 통을 착용하다(학생사무원, 비만여성) 목근육도 물론 풀어, 무릎, 허리에도 좋습니다. (방만하면 통상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NEW! BACK 30 DAY GUARANTEE

Sae Arc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그렉 (Greg) 직통: 213.278.5927 Office: 323.556.5386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www.LAORT.edu

-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약도 Bus 20min ORT Lajolla Fairfax 매드넬드 Wilshire

# WCC 대처 위해 전국적 조직 강화

### 한기총 WCC대책위, 구체적 활동 계획 논의



한기총 WCC반대대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WCC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우 목사)가 WCC(세계교회협의회) 한국총회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12일 오전 제23-01차 전체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재철 대표회장과 김영우 위원장을 비롯해 예장 고려, 대신, 합동중앙, 개혁, 기하성 통합, 예성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홍 대표회장은 1부 기도회에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기독교인들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악을 멀리하

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강조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WCC의 자유주의 신앙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며 "다원주의 신앙이 달치면 유렵교회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썰물같이 빠져 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홍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개혁신앙을 수호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좌경화도 막을 수 없다. 한기총이 효율적으로 WCC에 대처하면 모두가 따라올 것이다. 한기총은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

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김영우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고백과 대외활동을 다르게 하고 있다. 다원주의와 동성애는 적극 반대하면서 WCC에는 찬성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보수를 지향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한기총이 옳은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목사는 "신앙의 기본을 훼손하고 어긋난 교회일치를 말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책임질 것

인가. 한기총은 힘을 합쳐서 WCC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자신들을 위장해서 상대를 부수고 자 하는 저들에게 절대 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본질을 점검해야 하는데, WCC대처를 세우며 본질을 점검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일단 WCC대처 관련 세미나를 자주 열어야 하겠고, 핵심만 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또 DVD로 만들어 각 교회에 배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했다.

홍록두 목사(예장고려)는 "한기총은 철저히 보수 신앙인이 중심이 된 체인데, 그 안에서도 진보를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홍재철 대표회장님이 나섰는데, 반대자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결국은 WCC 때문이 아닌가. 보수교단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모임에서는 WCC 대처를 위한 조직 구성, 재정 확보, 홍보활동, 학술세미나, 대형집회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신태진 기자

## 한국교회연합회

### 설립총회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 예장 통합과 백석은 제3의 연합기구 설립에 불참키로

그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활동을 주도해 온 예장 통합과 백석이 가칭 '한국교회연합회'(이하 한교연) 설립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최근 한기총을 대체할 '제3의 연합기구'로서 한교연 설립을 결의했으며, 13일 설립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통합측의 경우 최근 박규근 총회장이 한교연 선거관리위원장직 사의를 표한 데 이어, 13일 총회에도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기총에 대해서는 행정보류 조치를 취했다. 백석측의 경우 얼마 전 임원회를 갖고 한기총과 비대위 사이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그간 대표위원장

으로서 비대위 모임 사회를 맡았던 유중현 총회장도 한교연 설립총회 임시의장은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비대위 참여 교단과 인사들 대부분이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교연 설립과 대표회장 선거가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되고 있고, 제3의 연합기구 설립시 한기총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교단 정기총회 결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유 등이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회의를 갖고 다음날 열 예정이었던 한교연 설립총회를 29일로 연기했다.

류재광 기자

## 교단명 사칭할 시 법적 책임 묻겠다

### 한기총 소속 58개 교단 명의로 반대 성명 발표

한기총 소속 69개 교단 중 58개 교단 명의로 현 집행부를 지지하고 (가칭)한국교회연합회(이하 한교연) 창립을 통한 분열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가 12일 발표됐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마치 본 교단들이 상기 단체(한교연) 창립에 참여하는 것처럼 본 교단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이용할 시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진 이번 한기총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선거에 대하여 속칭 '한국교회연합회'라는 유령단체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인사들(개인 자격)이 한기총 정기총회 직전 2월 14일 사회법에 개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한기총 현 집행부에 합법성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제3의 기구를 창립하여 한국교회에 혼란을 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급조되어 창립총회를 갖겠다는 속칭 '한국교회연합회'는 한국교회 앞에 공론화되지 않은 유령단체로 개인의 명예와 교권육에 눈이 어둔 일부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는 불법 단체이고, 한국

교회 분열의 주범들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단체의 가입 및 승인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적인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이들에게 참여하고 있는 교단 중 어느 한 교단도 총회 의결을 거친 바 없는 불법적인 개인들의 집단행동을 밝혀 둔다"고 했다. 통합측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총회에서 과연 불법 단체로 조직한 이들의 개인적인 불만을 총대들이 승인할 수 있겠느냐"며 "만약의 하나 통합측이 이를 허락한다면 1959년 WCC 가입문제로 장로교가 분열되었던 과거의 아픔을 또 한번 재연하는 분열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예장 통합, 개혁, 고신, 대신, 중앙, 기하성,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하성 통합, 기성, 예성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성명을 낸 한기총을 지지하는 소속교단 관계자는 "모두 각 교단의 책임있는 관계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명단에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광 기자

## 서세원 목사 "아내 현금 못하게 교회 쫓아가"

### 목회자 된 계기, 힘들었던 과거 심경 등 털어놔

개그맨에서 목회자가 된 서세원 목사(솔라그라티아교회)가 6년만에 TV토코쇼에 등장했다.

12일 오후 7시 방송될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한 서세원 씨는 "지난 10년간 루머와 오프로 마음 고생을 했고, 절벽 끝에서 서 있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괴롭고 힘들어 절망 속에 죽었다는 소리가 들기 싫었고, 하나님을 믿으면 최후에 승리한다는 성경 말씀을 믿었다"고 강조했다.

목사가 된 서 씨는 "방송생활 25년 중 1등으로만 달려와 스스로 교만했던 잘못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왔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세월 동안 가끔 억울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



서세원 목사

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사가 된 계기에 대해서는 "한신학대 총장님께 우연히 개인 레슨을 받고 신학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어느 순간 살아온 길을 돌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다"며 "아내인 서정희 전도사의 영향도 컸는데, 예전에는 현금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서 전도사를 막으려 아내의 가방을 움켜쥐

고 교회를 따라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시무하는 솔라그라티아교회에 대해 "교회 이름은 '오직 은혜'라는 뜻이고, 청담동에 교회가 있지만 월세도 싸고 성도가 20명 남짓 되는 작은 교회"라며 "현금은 모두 선교단체에 보내고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복귀에 대해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면 힘들듯 카메라와 조명을 떠나면 힘들기 때문에 여의도 모습들이 그렇기도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픈 마음도 있다"며 "지금도 방송 섭외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지만, 방송 환경도 많이 변했고 복귀는 쉽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이외에 故 장자연 사건과 연예비리 관련 루머들에 대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 한기총비대위 "설 곳 없네" 가치분 또 각하

한기총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법원에 신청했던 한기총 김자연 직전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최근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된 사실이 소명됐다"며 "지금에 이르러 (직전 대표회장인) 김자연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의 대표회장 지위 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새 대표회장이 뽑힌 이상 전 대표회장의 지위를 두고 더 이상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로써 홍재철 대표회장의 당선은 무효화하려는 비대위의 법적 시도는 모두 무위로 끝났다. 김진영 기자



## 세금무료상담

###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나,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학인목사회, 남가주 총회예지부, 벨엘장로교회, 엘에이사랑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번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번호사, 재미남가주황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성도의 헌금과 하나님과의 관계

고린도후서 8:1-12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 1. 헌금의 정의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히 드려야 할 도리임은 내가 구원 얻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 같은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듣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구원얻게 되기까지 복음 전달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생, 심지어 매를 맞거나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더러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제물이 된 신앙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거듭난 내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전도여행을 다니던가 아니면 헌금과 기도 후원으로 선교사의 후원을 하던가 해서 구원 얻은 자의 필수 사명인 전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리며 주님 계신 하늘나라 소망을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롬 14:7-8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심에 아멘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고전 6:19-20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심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나'라는 존재가 똥덩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지닌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일에 즐거움 마음으로 선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청지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소유물이니 내게 지니게 하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맡겨두신 주님의 것으로 관리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루살렘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교회가 1년 전부터 연보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번엔 실현해 달라고 디도 일행을 보내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의 극한 가난과 시련 중에서도 힘에 겨움도 많은 연보를 해서 도와 주었다면서 작정 헌금을 보내 달라는 편지 내용입니다.

## 2. 마게도냐교회들의 섬김의 본

빌립보교회는 두아디라 사람으로 자주 장사하

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바울 사도의 일행과 루디아의 헌신적인 전도로 영적인 부흥에다 선교에 힘써 (빌 4:15-19)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선교비 지원을 했고 데살로니가교회 세울 때에도 두 차례 선교 헌금을 보내 왔으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라디도 편에 선교비 기금을 보내 왔는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께서 세이레 동안 전도하다가 그곳 유대인들의 행포로 쫓겨 났는데(행 17:1-10 참조) 살전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정도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모범이 된 교회로 성숙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교회가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과정에는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정통한 복음과 빌립보교회에서 몇 차례 재정 지원과 기도 후원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 오늘도 역시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사역에 여러 교회나 성도들의 기도 및 재정지원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며 훼방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졌고 바른 신앙으로 양육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세계 선교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데살로니가교회도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신앙의 균형잡힌 신앙으로 모범 교회가 되었고 베뢰아교회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진지한 열정으로 성경공부를 하며 신앙 인격과 성품이 신사적인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면서 예루살렘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힘에 겨움도 록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마게도냐교회들은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선교 사명이 불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 3. 성도의 헌금과 하나님과의 관계

미국의 어느 흑인교회에서 선교주일에 목사가 설교를 하시면서 "선교로 구원 얻은 성도들과 성령받은 교회의 필수적 사명이라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주수가 시급한 이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유희와 쾌락의 길을 달리지 말고 다 같이 복음 들고 선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했을 때 신도 중 몇 분이 "Let's go!"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때가 급하여 복음을 들고 걸어

다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쫓아 다녀야 한다고 하시니 청중이 다 "Let's run!" 하면서 달려 가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걸어 가거나 달려 간다 해도 주님 재림 전에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다 복음을 전하자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 다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역시 "Let's fly!"라고 화답했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나 여러분 중엔 기업경영이나 직장에 매여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 타인 즉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의 지원을 위해 선교헌금(Mission Offering)을 해 달라고 했더니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형편이 나아보이는 어느 장로님께 "Elder, I know you are able to give, how much are you willing to offer?(장로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Yes, I can do it, but not now. Wait until later"(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이같은 상황을 보면 교회에서 남들이 지원해 주는 선교비로 선교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았으나 정작 선교 확장을 위하여 선교사에게 재정 지원을 하라고 할 땐 모두가 움츠리고 주머니를 닫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떠한지 기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치셨고 오늘 우리로 천국 소망을 얻게 해 주려고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바쳐 희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선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투철한 사명의지로 투자와 희생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Why do you obey and sacrifice yourself to the word of Jesus? (왜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느냐)라고 물을 때 "I do that because He is my Lord, of course.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Offering is a sacrifice. 헌금은 희생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께 복을 심는 것과 같다고 고후 9:26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신도는 아까워서 드릴 수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라면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섬기는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더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며 모든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르하시게 해 드리고 고과 받듯없이 몸부림 친답니다.

행 17:24-25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살아 있음도 주께서 내게 생기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덕분이며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도 주께서 자기 용도를 위하여 내게 맡겨 놓으신 것이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기회가 왔을 때 지체없이 선용해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할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며 선한 청지기상을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롬 12:19-21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하셨습니다. 딤후 6:17-19에서는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 복락을 위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삼습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AM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곡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장영춘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남가주 목사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는 옹바르고 참신하며 효율적인 성경적 리더쉽을 갖춘 풍부한 사역의 경험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는 세미나로 여러목회자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12년 3월 19일(월) 오후 5시  
장소 : 한미장로교회(담임목사 이운영)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739.8824  
※ 세미나후 저녁식사 제공

주최 남가주한인목사회 협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미주크리스천신문

회장 김영대 목사 714-392-9576 | 부회장 김영모 목사 213-718-0098 | 총무 허귀암 목사 714-308-7308

# 회복과 재도약의 40일 특별기도회

## 동양선교교회 매일 저녁 집회로 은혜 충만

동양선교교회가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8일 부활주일 저녁까지 특별한 40일 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매일 저녁 8시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교회 관계자는 이 집회에 관해 “과거에 정리되지 못한 상처들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이것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매일 저녁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매일 평균 250명이 모일 정도로 성도들의 참여도 뜨겁고 교

회가 변화의 바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40일 기도회는 예배 형식을 띠고 있으며 설교 후에 약 20여분간의 기도로 진행된다. 지난 3월 8일 기도회의 경우는 김경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후에 민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굳어진 마음이 녹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되도록 기도했다.

빅터 박 기자



김경록 목사가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고 있다.

#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 되라

## 안디옥장로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임직식

안디옥장로교회(지윤성 목사)가 창립 36주년을 맞아 기념 축하 및 임직예배를 3월 11일 주일 오후 3시경에 드렸다. 이날은 집사 임성일 외 3명, 권사 김순옥 외 2명, 명예권사 신인자 외 1명이 임직했다. 임직예배의 설교는 미주 합동총회 총회장으로 있는 전요한 목사가 전했다. 전목사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 ‘쓰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하나님께서 쓰이기에 합당한 사람은 겸손하고, 신앙적이며, 부지런한 사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며 “임직자들이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총회신학교 총장 정고영 목사는 “임직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

님 중심으로 신앙의 원리대로 봉사하길 바라고, 직분자들 간에 화목해 성령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권면했고, 부총회장 신상원 목사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길 바란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가 받았던 ‘참 크리스천들의 공동체라는 칭송’을 받는 교회를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사에 거주노회장 박종대 목사는 “지금까지 권면해 주셨던 것에 하나만 덧붙이겠다”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삶이 가능하다”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임직자들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빅터 박 기자

# OC한인목사회 주최 상경추 세미나

오는 19일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에서 OC목사회(회장 신종은 목사) 주최로 Dr. Hall(상경추병원 원장)을 초청, 상경추 무료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 시작은 오전 10시 30분이고 대상은 OC 지역 목회자와 사모, 그 가족들이다. 총무 김영찬 목사는 “38년동안 고생하며 한방과 양방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고질적인 좌골신경통을 이곳에서 치료받았다”며 “OC 목회자들 중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사모들과 가족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Dr. Hall에게 설명했는데 그가 흔쾌히 받아들여 무료로 치료해 주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상경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가진 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상경추 목뼈를 치료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참석자들이 많아 정해진 시간이 부족할 경우 1000불에 해당되는 초음파 무료 검사권이 배부된다. 김 목사는 “어느 교회 여 전도사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에 혹을 발견해 치료받

았고, 내 아내도 담낭 질환을 발견해 치료받았다”며 “OC 목사님들과 가족들 누구나 오시면 좋겠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꼭 예약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OC목사회에서는 한석호 목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에너하임 작은자교회(안근성 목사)에서 목회자, 사모, 평신도를 대상으로 기타 교실을 열고 있기도 하다. 예약문의: 562-833-5520 김명연 총무: 714-785-2691 기타교실: 562-822-6778 한석호 목사 빅터 박 기자



임직자들과 순서를 맡은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했다.

# [새벽강단59]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안 경 찬 남가주왕성교회 목사

제목: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일시: 2012년 3월 10일  
설교자: 남가주왕성교회 안경찬 목사

본문: 시편 4:1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4:2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재물을 구하겠는고(셀라)  
4: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4:4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셀라)  
4: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4: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4: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4: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사니이다

이 사순절, 고난을 앞둔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쓰임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기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총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7장에 기드온 300 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은 2만명의 용사 중에 1만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을 돌려 보냈습니다. 300명만을 쓰셨습니다.

우린 이 사순절동안 나 자신을 참회함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 위에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절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절제로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 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 위에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칠 때에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서

계 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로 택하셨습니다. 노아도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욥,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린 내적 경건을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린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린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 경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우린 이 기간 해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내적 훈련으로 허를 다스리고 외적 경건으로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 줘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나의 갈 길을 보여 주시게 됩니다. 롬12장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대학원은 California 주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학교로서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차세대 엘리트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신학대학원입니다.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2년 여름학기 신/편입학생을 모집합니다. (5~8월)

■ 신학사 / B.TH	■ 목회학 석사 / M.DIV	■ 기독교상담학사 / B.CC
■ 신학 박사 / TH.D	■ 신학 석사 / TH.M	■ 기독교상담석사 / M.CC
		■ 기독교상담박사 / D.CC

전문인 대상 정규 신학생 모집 (M.DIV과정)  
 ▪ 특별 전형으로 엘리트반 신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 HORIZON 신학대학원 학생모집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통
-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3/ 담임목사 및 목사 1인 추천서 각1통
- 4/ 신앙고백
- 5/ 사진(2"X2")2매
- 6/ 전형료 \$100

**특전**

- 1/ 본교는 이민국 SEVIS에 등록되었고 I-20 FORM을 발행하여 유학비자신청함.
- 2/ 본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함 (사명이 분명한자에게는 전액 장학금 지급)
- 3/ 목회학 석사(M.DIV) 출신자에게는 본 대학원이 지정한 교단에서 고시 후 목사 안수함. (본교 재학생에게 SAXOPHONE 무료 강습 제공)

이사장 한천석장로 / 총장 Rev & Dr 엄기환 / Horizon 신학대학원: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736-5000 / Fax: 213-736-5115 / Cel: 213-926-5016 / www.huniv.org

# “당신이 바로 보화 담은 질그릇”

## 제16기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 훈련 시작돼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들을 위한 교육이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 침체와 더불어 가정불화, 우울증, 자살의 충동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생명의전화 상담봉사원들이다.

최근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는 새로운 상담봉사원을

양성하는 제16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가 있었다.

생명의전화는 대도시에서 사는 고독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 앨런 와커 목사가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이영민 목사에 의해 시작되어 1976년 개동됐고, LA는 한국 생명의전화에서 10

년간 봉사해 온 박다윗 목사(미주 생명의전화 대표)가 1998년 설립해 지금까지 수천 명의 한인들이 상담을 통해 위로를 얻고 회복을 경험했다.

상담봉사원 훈련을 위해 엄성현 박사(상담심리학), 양은순 박사(HIS UNIVERSITY 총장), 고명희 원장(ABC상담대학교육원 원장) 등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박다윗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40명이지만 현재 60여명이 등록해 상담을 원하는 이들 뿐 아니라 개인 성숙과 가정회복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을 마친 상담원들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자원봉사자로 뽑히고 매일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2교대로 LA에 있는 오피스에서

전화로 상담 사역을 한다.

강사로 나선 엄성현 박사는 ‘절망감, 상실감, 공허감, 치유상담’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했다.

엄 박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깨어진 존재라서 상실감, 절망감, 공허감을 가지고 있다”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깨어진 부분을 붙여셔서 깨지기 전보다 더 튼튼하게 하신다”고 전했다. 또 그는 “누구나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면 보화 그릇이 된다. 상담원이 그들에게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문의: 213-480-0691(박다윗 목사) 빅터 박 기자

# 건강한 커플 관계 위해 정기검진 받으셨습니까?

## FBM 센터, 커플 관계 검사 워크샵 개최



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주최한 워크샵이 진행 중이다.

가정사역 단체 ‘가정을세우는 사람들’(금정진/금병달 공동대표)과 탈북신학교의 씨니 송 교수가 주최한 제4회 커플 관계 세미나가 지난 3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교역자들과 소그룹 리더들이 부부나 연인 등 커플들에게 상담이나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이 프로그램은 상담자들과 목회자, 교육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개발됐고 500만명이 이 검사를 커플 관계를 검진받았을 정도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검사에는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 애정표현, 성격기대, 신앙, 결혼 기대, 관계 역할, 친밀성과 유연성 등 10가지 영역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까지 제시된다.

한 참석자는 “교재가 매우 체계적이라 배우는 자나 상담하는

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더 알려져 많은 커플들이 더 나은 신앙 생활, 가정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병달 대표는 “한인들의 상담수가 대외의 기술과 갈등 해소의 기술이 부족하다. 대부분 회피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많은 가정이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비는 175달러(커플 관계 검진 비용 포함)이고 부부가 함께 참가할 경우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프로그램 참석자는 교재, 강의 DVD, 온라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함께 수료증이 주어진다.

문의: 714-287-2458 토마스 맹 기자

# 21세기 목회자의 지도력과 영성, 그 핵심은 무엇인가?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봄 신앙 사경회



이상명 총장 시양-양 탄 박사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원 신학교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대)가 금년으로 개교 35주년을 맞이했다.

미주장신대는 그동안 약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작

년 2011년 2월에 서서고등교육협회(ABHE)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았고, 현재 신학교협의회(ATC)로부터 준회원 자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주장신대는 올해 1월에 총장으로 선임된 이상명 교수(목사)가 제시한 다섯 가지 비전과 함께 힘찬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다섯 가지 비전은 양질의 신학교육, 역동적인 영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교양 교육, 실제적인 이종언어 교육이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방

안의 일환으로 미주장신대는 풀러신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며 글렌데일 제일복음주의교회(First Evangelical Church Glendale) 담임목사인 시양-양 탄(Siang-Yang Tan)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2012년 3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미주장신대 채플실에서 봄 신앙사경회를 개최한다.

시양-양 탄 박사는 “21세기 목회자의 지도력과 영성”이라는 제하로 “21세기 목회자의 상(Image)과 역할”(오전 집회), “21세기 목회자의 지도력 개발”(오후 집회) 그리고 “21세기 목회자의 영성 개

발”(저녁 집회)이라는 관련 주제를 가지고 총 세 번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영성과 지도력 부분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명성이 자자한 시양-양 탄 박사의 메시지는 목사 후보생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복음의 정진으로 선도해야 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지도력과 영성을 함양하는 데에 큰 도전을 줄 것이다.

이번 봄 신앙사경회 관련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학교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연락처: 562-926-1023, 4691 김준형 기자

# 실버드림대학 “복음으로 실버 세대 섬겨요”

## 생활영어, 바둑, 컴퓨터, 건강체조, 노래교실 강좌 열려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담임목사)가 실버드림대학 개강예배를 8일 오전 9시에 드렸다.

이 교회가 실버 세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 가운데 탄생시킨 실버드림대학은 1부 경건회에 이어 곧장 수업으로 이어졌다. 60세 이상 노인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영어, 바둑, 컴퓨터,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의 수업이 오전에 있었으며, 점심식사 이후에는 자생한방병원 주관으로 건강 세미나가 열렸다.

위원장 권오승 장로는 “이 대학

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등록해 종이접기 교실 등이 추가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더욱 즐거운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이 대학 설립의 제일 목표”라고 꼽기도 했다.

이번 학기는 16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여름방학 이후에 가을 학기는 8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한 학기 학비는 30불이다.

실버드림대학은 향후, 시민권 강좌 등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



실버드림대학 학생들이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

양한 강좌를 개설해 지역사회 섬김에도 나설 계획이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LA 한인타운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 문의: 323-913-4499 토마스 맹 기자

# 한방 사역으로 섬김과 나눔 실천

## 자생한방병원 이달도 교회 무료 진료 실시



자생한방병원에서 오렌지카운티 교회들을 위한 진료 서비스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쳐 큰 호응을 얻은 자생한방병원이 3월에는 나침반교회와 늘푸른선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했다.

지난 11일 40여명의 성도들은 자생한방병원 풀러튼분원을 방문해 다양한 검진과 진료를 받았고 감사의 뜻으로 헌금했다. 이 헌금은 전액 해당 교회로 환원돼 의료 선교기금으로 봉헌됐다. 성도들

은 접수에서 검진, 분석 및 치료에 상당히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매달 한차례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의료 섬김 행사를 펼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은 오는 4월에는 빛내리교회를 대상으로 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이 병원의 윤재필 대표원장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의료분과 위원장이기도 하다. 문의) 714-773-7000 선승민 기자

# BAK KUNG 白 宮 KOREAN B.B.Q

숯불구이 전문

백궁은 최상급의 고기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b>런치 스페셜</b>	<b>\$7<sup>99</sup></b> 고등어+된장 이면수+된장 잡채+된장 오징어+된장 김치전골	<b>\$5<sup>99</sup></b>	<b>\$6<sup>99</sup></b>
	<b>A \$9<sup>99</sup></b> Lunch Only 11am-5pm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매운양념닭갈비 오징어 주꾸미	<b>B \$13<sup>99</sup></b> 차돌 소스삼겹살 소불고기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돼지껍데기 매운양념닭갈비	<b>C \$16<sup>99</sup></b> 갈비탕 육계장 내장탕 <b>B +</b> 돼지불구이 L양념갈비 L양념갈비 허밀구이 새우구이(힘줄) 스키구이(힘줄)
	<b>D \$22<sup>99</sup></b> <b>C +</b> 꽃살 (2인/10 pcs) 양념양갈비 왕갈비 장어구이 양줄구이		

소주 소주1병 \$6<sup>99</sup>

3700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19  
**323.734.9292**

#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아” VIULA 개교

## 이길소 총장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Vision International University LA(이길소 총장, 이하 VIULA)가 개교예배를 7일 오후 5시에 드렸다.

이날 이길소 총장은 인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지금 까지 왔다”며 “유서가 깊은 LA제일침례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교를 전한 김일형 목사는 “우리가 왜 선교지로 가야 하나? 그것은 예수님이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또 선교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였다.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빛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마땅히 선교지를 섬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목사는 “왜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미국 땅에 보내셨나? 이는 다문화화를 익히고 우리들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이전의 방식은 내려놓



세계 선교 비전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 VIULA가 개교예배를 지난 7일 드렸다.

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큰 능력을 받는 대학이 되길 원한다”고 역설했다.

개교예배는 예배 인도에 김정웅 목사, 경배와 찬양에 노영주 사모, 기도예배 이상환 목사, 특별찬양에 김나리 자매, 설교에 김일형 목사, 취임 증서 전달에 Dr. Tom Schulth, 총장 인사에 이길소 총장, 학교 설립 소개와 입학 안내에 안한용 수석부총장, 찬양연주에 김용석 집

사, Nelson S. Kwon 선교사, 축사에 Rev. Carlton A. Rhoden(LA제일침례교회), 격려사에 Dr. Robert B. Wallace(대학원장), 축도에 정모세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VIULA는 LA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of Los Angeles)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든 그로브에 분교가 있다. 학과목은 선교학, 구약학, 신약학, 히브리어, 영성, 성서영어, 성경정독 등이 개설돼 있

다. 이 대학은 말씀선포를 기초로 삼고 교육, 교제를 통해 전 영역에서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방식으로 세계선교 비전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에는 이길소 총장의 선교학 강의 ‘오늘과 내일의 선교’가 공개강좌 형식으로 열리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천번을 불러도”

## 주리 찬양콘서트 개최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에서 지난 4일 주일 오후 2시경 CCM사역자 주리의 찬양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집회에는 250여명의 성도가 참석했으며 주리는 자신의 대표곡 ‘천번을 불러도’, ‘값을 수 없는 사랑’ 등을 불렀다.

또 간증시간을 통해 “모태신앙으로 자라나 신앙을 문화로 여기며 살았다. 어느 날 내가 크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난 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게 됐다”고 증거했다.

주리는 미주 지역 이민교회를 섬기고자 미주 투어를 결정하고 동부를 시작으로 서부에서는 은혜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은누리교회에 이어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의 집회까지 한 것이었다.

한편, 주리는 2008년 첫 앨범



찬양 사역자 주리

을 출시하고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아 유명 CCM 뮤지션들의 음반과 드라마 OST에도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CTS 기독교TV “내 영혼의 찬양” 메인 보컬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 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빅터 박 기자

# 청년을 살리는 음식은? 바로 비전!

## 조은교회 비전 페스티벌에 천관웅 목사 초청돼

토랜스에 소재한 조은교회(김바울 목사)의 청년부 Acts는 ‘청년을 살리는 음식: 비전’이라는 주제로 네 차례의 비전 페스티벌을 개최해 은혜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8일 목요일에 있었던 비전 콘서트는 이번 비전 페스티벌의 마지막 시간으로 작년에 3집 앨범 ‘Mighty Generation’을 발표한 CCM 가수 천관웅 목사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약 7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 나가겠다는 강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조은교회 청년부 Acts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찬양예배와 주일 오후 3시 예배로 섬기고 있다. 문의: 청년부 지도 목사 민승배, 310-938-0824

빅터 박 기자

# 감사한인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부흥성회 열려



감사한인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부흥성회에서 지용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빛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제로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가 창립 29주년을 기념해 지용수 목사(창원 양곡교회) 초청 부흥성회를 ‘빛을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7번의 집회가 열렸으며 성도들은 은혜와 기쁨을 만끽했다.

교회 측은 “초신자나 오래된 성도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해서 말씀을 풀어 증거했고, 진지하면서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매 집회마다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기쁨이 넘치는 부흥회 기간이었다”고 간증했다.

지용수 목사는 창원 양곡교회에서 시무하며 현재시간인 지용수 목사가 시무하는 미주양곡교회의 협동목사로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을 역임했고 ‘그리스도인의 주소’ 등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빅터 박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토랜스 조은교회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

**J'S Violinshop**

**NEW YEAR BIG SALE**

25년 전통의 명품악기 취급 전문점

J'S Violin Shop & Total Music & Audio-Visual

Rent, Buy, Trade, Repair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65.2244 WEB www.jsviolinshop.com



#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신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직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부활절 특별행사를 위한 무선마이크 조명 스테이지 렌탈해 드립니다**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털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감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Logos: JBL, Meyer Sound, ETC, bogen imaging, NEXO, ROBE, EAW, SONY, SANYO, SHURE, CHRYSTIE, EDIROL, DIGICO, AVIOM, LEVITON, Martin, JVC, Panasonic, Bose, TASCAM, Extron, SHARP, SENNHEISER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에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만민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시편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김재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 오후 7:00 (말-토)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 건강한중형교회, 행복한가정

4063 Ingrah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려 나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장성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토)  
오전 10:30 (수)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오전 6:30 (토)  
유치, 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마리 김 선교사**  
2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집회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1부예배 오전 8:00 한양한인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Youth에 오전 12:00 오전 6:00 (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비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말-토)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새벽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후 2: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 오후 7:30 (수)  
4부예배 오후 1:30 성경집회 오후 7:30 (매일 둘째 금)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472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수요일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정상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요셉선교회**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T. (213) 245-409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1:45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토)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요일) 수요일 오후 7:45  
오후 12:3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아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 (말-토)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강을 건너 세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감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 동성애자 안수 싫다면 교단 이전 가이드라인

### PCUSA 한미노회 선행 조건 발표 및 결의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교단의 동성애자 성직 허용에 반발해 이전하기 원하는 교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동부한미노회는 6일 저녁 뉴저지 엘리자베스한인교회에서 제61차 정기노회를 열고 이를 결의했다.

동부한미노회가 이날 확정된 개교회의 교단 이전 가이드라인은 현재 PCUSA 교단 내 복음주의 교회들이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는 등 교단 탈퇴 움직임이 있자, 교단 차원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노회별로 교단 이전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현재 PCUSA 교단측은 '탈퇴'라는 단어보다는 '원만한 이전'(Peaceful dismiss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개교회와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동성애자 성직 허용의 파고를 넘는다라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부한미노회도 양촌길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7인의 위원회를 구성, 이날 정기노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참석한 노회원들은 7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여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이날 완성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부한미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타고 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우선 노회와 협의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노회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한다. 특히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의 50%가 참석, 이중 80%가 교단 이전에 찬성한 다면 노회는 개교회의 교단 이전을 허락한다. 개교회가 교단을 이전할 때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해당 교회의 소유로 허락하게 된다. 당초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은 90%의 찬성으로 기준이 높았으나, 이날 논의 끝에 거수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은 결과 80% 수준

#### 교단 이전 절차는?

- ① 노회와 협의
  - ② 공동의회 50% 참석, 80% 찬성
  - ③ 향후 3년 노회비 납부
  - ④ 채무 정리
  - ⑤ 노회의 허가 후 이전
- 장점은?
- ① 교회 재산이 교회에 귀속
  - ② 노회 재정적 후유증 최소화
  - ③ 교단과 교회 갈등 최소화
  - ④ 행정적 절차 간소화

으로 결정됐다.

또 이전하는 교회는 노회에 향후 3년 동안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1년차 100% 수준에서, 2년차 2/3, 3년차 1/3을 노회에 납부해 노회 운영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타고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는 총회 및 노회와의 채무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노회비에 대한 납부가 완료돼야 노회는 해당 교회의 이전을 허락할 수 있다.

동부한미노회의 이번 결의는 동성애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PCUSA 교단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재산을 유지하면서 교단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열어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교단을 이전하려는 교회는 동부한미노회 안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부한미노회 한 임원은 오는 6월 정기노회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월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원 기자

# “동성애를 동성애라 하지 못하고...”

### PCUSA의 새 풍경, 찬반에 대한 직접적 문답 금지돼

6일 열린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제61차 정기노회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느냐”는 질문이 금지됐다.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회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을 교단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 찬성 혹은 반대를 표명하는 답변도 금지된다. 결국 이날 노회에 가입한 김세형 목사는 “전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성적 지향성을 밝혔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가정을 갖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한 것이다. 노회원들은 김세형 목사의 재치있는 답변에 한바탕 웃으며 안심한 표정으로 노회 가입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모습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입장이 분명한 동부한미노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동성애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원하거나 동성커플이 결혼하길 원해서 PCUSA 교단과 교회를 찾을 경우, 동성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노회원들은 이들의 노회 가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향을 물었다. 한 노회원은 “동부한미노회 노회원 가운데 목사는 목회위원회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고백을 꼭 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장 예민한 문제이고 동성애 문



노회에 새롭게 가입한 목회자들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논의가 동부한미노회에서 이뤄졌다. 사진 가운데 두명 이 김세형 목사와 김충홍 목사.

제로 인해 개교회에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노회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원로급 한 노회원은 “새롭게 노회에 가입하는 목회자가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신앙고백서에도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요청에 김득해 목사는 “총회에 기본 본들은 알겠지만 동성애에 관한 내용은 군대와 같이 'Don't ask, don't tell' 이다. 본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모

르겠지만 묵화하면서 당신이 동성애자로 발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촌길 목사는 “목회위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의) 한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6일 열린 동부한미노회 정기노회는 동성애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가진 노회에서도 교단의 동성애자 성직 허용의 파장이 극심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현상이었다.

김대원 기자

## 탈북자 문제, 유엔인권이사회 주요 의제로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 강제복종종지 촉구를 위해 12일부터(이하 현지시간) 이를 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를 비롯해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제네바

에서 북한인권 개선행동을 벌였다. 탈북자들을 위해 단식하다 쓰러졌던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도 휠체어를 타고 제네바로 이동했다. 국회는 박 의원 외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이은재 북한인권위원장과 안영환 의원 등이 대표단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관련 활동을 했다.

미국 로버트 킴 대북인권특사도 이사회에 참석해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이번 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됐다.

네트워크 파견단은 12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청취하고, 탈북난민 강제복종의 심각성 실태를 알리는 미팅을 가졌다. 13일에는 북한인권 사진전시회를 개최했고 14일에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대용 기자

#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 대단히 놀랍고도 빠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눈이 안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피순환이 안좋아져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을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이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합니다. 재발할수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술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믿기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1.예) 70대 바라보는 LA인근에 사시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는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서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믿을수가 없다. 신기하다.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2.예) 50대 남성으로 오펜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병별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나 믿기지않아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

3.예) 70대의 할머니 엉덩이부터 땀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수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서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4.예) 젊은 학생이 6개월정도에 다리들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봉대를 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일이 이 세상에 있다니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5.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배부위의 통증으로 무슨 큰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바 침 시술후 3분도 안되서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했었습니다.

6.예) 80대의 할머니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로 여러 알약을 복용하던 중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후 모든 알약을 다 끊고도 수치가 정상이 되니 가족도 놀라와하고 병원에서 믿기 힘들다고 의아해 했다고 말하면서 그저 주위사람들이 놀랍고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7.예) 4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당뇨를 앓은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이고 Insulin 70Unit맞으면서도 400~500정도 당수치가 나오고 몸은 너무나 말라서 보기가 힘들정도이고 발바닥은 가죽처럼 찢겨져 있었고 살을 포기한 모습으로 내원한바 본원에서 3개월 남짓 치료후 눈이 어둡듯이 보이면서 Insulin 40Unit 맞으면서도 당이 100정도 내려오고 몸에 살이 붙으면서 발바닥도 보드라워져서 이 기쁨은 천하를 바꾸어도 누릴수 없는 행복이라고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 2병 사면 2병 FREE!  
**당뇨병에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http://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Coupon**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프로그램  
**50% off** 3/31/12까지

# 솔제니친과 제레미 린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이 비극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하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잊어 버리면 그 땅에는 절망과 탄식과 비극만이 일어날 뿐이다. 하나님을 잊어 버린 북한이 지금 신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 가는 미국 땅에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불안과 위기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결코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기억을 자꾸 잊어 버려 버린다. 하나님을 잊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능력을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 절망과 포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것이다.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다.

돈과 권력으로 혼탁되어 있는 프로 농구의 세계에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혜성같이 나타난 젊은 선수 제레미 린은 경기가 끝나면 늘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있다.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린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잊어 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바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 하는 것이다.

구 소련의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위해 항거하며 반체제 인사로서 참다운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 주었던 솔제니친은 1983년도 텔레프론상 수상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왜 러시아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6천만명이 넘는 인명이 학살 당하는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친은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었다. 그는 사상가요 문학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대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안목과 능력이 남달랐던 것은 바로 남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었다. 솔제니친은 어린 시절에 러시아 공산혁명을 직접 경험한 자였다. 자신이 사랑했던 삼촌, 이웃, 그리고 한 시대를 품어준 유망 인사들이 끌려 가서 처형되는 장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서 아수라장이 되어 가는 그 모습 앞에 그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처참하게 처형 당하던 그 어른들이 남긴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왜 이 땅에 이토록 처참한 비극이 찾아 왔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20세기 소련 땅에서 시작된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갔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3:32-33)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심과 고

난에 처하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채 자기에게 집착해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허망하게 인생을 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9년 전에 이미 다니엘과 에스겔 등을 미리 바빌로니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실 계획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경제, 사회 등의 여건 악화도 참 힘든 이런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본심은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내게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사회적, 경제적 정의와 개인적 정직, 그리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순

종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잠잠히 내어 놓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본심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롬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지선 양의 책 <지선아 사랑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로 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 가고 싶지 않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고, 또 지금 제 안에 담고 있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축복의 보물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고 이후 제 삶을 통해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그 때부터 미래와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 [신앙논단]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바른 이해



조주호 목사  
리폼스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영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 얻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잊어 버리고 가로막힌 홍해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을 보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나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보니 홍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든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로 바다에 내 밀라"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여 홍해는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보다 더 소중한 삶의 방법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열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 무화과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꾸짖으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바다에 던지울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예루살렘 교회 안은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집

수들을 끌어들이고 팔고 사는 강도의 굴혈과 같았습니다. 긴 세월 속에 지어진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없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만든 자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의 전통과 오랜 역사의 뿌리를 내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 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배 목적을 벗어나 장사꾼들이 우글대는 장터와 같이 전락해 버리고 서로 속이고 이익을 쫓기는 모습이 현실 교회 안에도 있다는 점이 신앙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날 교회 그룹이 여행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는 분이 운전 중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이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본 동행자가 "잠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기도라는 형식을 따라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지

요. 경건은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주지만 외식으로 발전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하고 마치 눈을 감고 차를 모는 운전자같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산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만민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재산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무기입니다.

교회를 몇 주 잘 나오시는 어떤 분에게 "이제는 등록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시자"고 했더니, 이분은 "저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장사꾼들을 교회가 부흥이라는 명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멤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 <제 10회>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유동근 목사  
한국 은누리선교회

4장 5-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인 물질 문제이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맨 먼저 시험 당하신 것이 육신을 위한 먹는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역자의 위치와 위임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의 먹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자격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 문제를 패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두 번째의 문제는 명예와 관련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어 사자들이 받아 살았다면 단번에 메시아의 명예와 명성을 획득할 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초라한 신분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다. 그 때 주님이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 천사들에 의해 받들림을 받았다고 소문이 나면 즉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유명하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대번에 대단한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분은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을 받고 흡모할 것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된, 구약에 기록된 대로의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시

험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날도 진정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잘 안다. 이번에는 마귀도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있는가? 마귀는 우리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도 알고 있다. 농담같지만 귀신같이 잘 안다는 말이 있다.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귀신들린 한 여자가 우리 지체들을 농락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물론 나중에 귀신은 쫓겨 갔지만 그 이전에 귀신들린 여자는 모임 가운데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사정을 과거사까지 속속들이 좌중에 말함으로 수치를 주었다. 사탄은 매우 여러가지로 잘 알고 있으며 사람을 속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인 음식 문제의 관문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마귀는 주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말한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칭하여 부른다. 사람의 위치를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이 사람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신 것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구속의 역사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다. 사탄은 이 말을 시편 91편에서 인용해 가지고 했다. 이는 사탄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시험에 걸려 들지 않으셨다. 성경으로 총만하신 주님은 마귀의 간계를 아셨다. 그리고 "또 기록하였으되"라고 대답하셨다. 오늘날도 마귀적인 성경의 인용이 있다.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근거하는 것처럼 말한다. 한 편만 들으면 그럴 듯하다. 그런 말

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또 기록하였으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의 전술에 넘어가기가 쉽다.

대부분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들은 잘못된 말씀의 적용이다. 시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성경께서 자연히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므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신다. 우리가 자원하여 그분의 뜻을 기뻐함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뭔가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이다. 그때 주님은 믿음의 말씀으로 응수하셨다. "또 기록하였으되 주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사람들이 간교하게 인용하는 수가 있으니 믿는 이들은 조

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위험을 당할 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나, 스스로 위험을 모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이삭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주님은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을 아셨다. 여기서 "또 기록하였으되" 하시면서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정확한 말씀이다.

그러나 사탄도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 인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용하는 말씀도 있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인용하는 말씀도 있다.

주님은 "또 기록하였으되"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을 해야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 지금은 교회가 개혁할 때이다 (4)



송택규 목사  
세계크리스천성성 대표

이 성막 속에 숨겨졌던 모든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사랑이 예표된 상징들로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 주신 것이다.

첫째 비밀인 하늘성소의 모형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둘째 비밀인 예수 탄생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시는 중점 사역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도말할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성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 때까지의 전 생애를 예표해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모델이 되셨다.

셋째 비밀인 구원의 단계는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극진한 사랑의 배려였다.

넷째 비밀인 교회의 예배 모형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생령으로서, 그들이 마귀의 계교로 탈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

호하심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무사히 구원의 단계를 통과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밀은 믿음의 점검과 은혜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수수방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을 안 들 때에는 벌(징계)을 주기도 하시는 실제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불꽃같은 눈으로 보시며 관찰하시고 항상 저울에 달아 보신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되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로 감사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다섯가지 비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자녀 사랑인 인류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섯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구원의 단계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단계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셔져 새사람으로 태어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 제도를 마련하셨으며 또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지켜 보시고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싸게 "민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영혼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방법대로 살아온 인본적 사상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의 개념으로 변화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깨어지고 부셔지는 고난과 아픔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갈 수 없는 과정들이다. 그럼으로 이 구원 단계의 과정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며 감사요 행복이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 교회 내의 문제점

##### 1. 구약폐지론과 경시 태도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일부 교회 내에는 은연 중에 구약의 엄한 율법시대는 지나갔다는 구약의 무용론이 생겨 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대이므로 사랑만 강조하며 성도들의 비위만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일확일점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구약이 엄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신약은 용서와 희생적 역할을 강조한 자상한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사랑과 용서 없이 율법적인 공의만 외치는 엄한 아버지의 단점을 보완시켜 성경을 완성코자 신약 속에 하나님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바로 구약과 신약은 엄한 아버지와 인자하신 어머니의 부부상으로 광야를 달리는 쌍두마차의 두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느 한쪽인 사람만 강조하다 보니 공의가 훼손되어 성도들의 거룩한 참 삶의 모습은 사라지고 윤리와 도덕이 상실된 채 인본주의의 극치인 편향된 자유방임주의로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원인은 검증되지 않은 신학서적들과 신학 교육 탓이라 할 수 있다. 이 해결책은 우후죽순처럼 난무하는 신학서적들을 검증하고 나쁜 서적들을 가려내 홍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교계에 두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신학교 문제의 경우 신학교 연합체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 하나 시정하여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0%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체,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해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지)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 금 샅니다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 출장 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가나 플러밍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Tel. 213-220-4123

##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 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 APPLE TREE ACADEMY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Pick up, 전담한 인턴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들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방수 · 루핑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364.2124

# “잊혀진 가방” 나의 가방엔 과연 무엇이

[인터뷰] 김상철 감독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 줬으면”



제작에 참여한 김대학 전도사와 김상철 감독이 영화 잊혀진 가방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영화 ‘잊혀진 가방’(김상철 감독, 파이오니아21 소장)은 선교사들의 잊혀진 가방을 통해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본질과 사명을 일깨워 주는 다큐멘터리다. 지난해 11월 17일 한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에 많은 이들은 공감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 영화는 배우 권오중, 가수 이현우 등 두 명의 남자가 가방을 찾

기 위해 떠나는 로드무비 형식으로 짜여 있다. 권오중과 이현우는 선교사들이 선교 훈련 시절 교육을 받은 후, 선교지로 떠나기 전, 두고 간 가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극해 영국 볼스트로드(Bulstrode)의 WEC선교센터로 여행을 출발하게 된다. 주인이 있지만 찾가지 않는 이 가방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80년이나 된다.

다큐 제작진은 가방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영국, 호주, 남아공, 콩고, 우간다, 기니비사우, 세네갈, 캄보디아 등 8개국에 걸쳐 6개월 동안 17명의 가방 주인 후보자들을 추적하게 된다.

김상철 감독은 “이 가방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헌신할 때 들고 온 가방으로, 선교사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센터에 두고 선교지로

떠난 것이다. 그러한 38년 된 가방을 열었을 때, 케임브리지 의대 졸업장, 연애편지 등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나오게 된다. ‘잊혀진 가방’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한 예로 필립 우드와 낸시 우드는 의사 부부이다. 이 두 사람은 1972년 콩고로 단기선교를 갔다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의 후임으로 장기선교사가 된다.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해 오면서 외과 의사인 필립 우드는 하루 10여 차례 수술을 지역민들에게 시술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화 촬영 스태프로 참여한 김대학 전도사는 “이분들은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인 30대 젊은 의사 부부지만 선교지에 가서 40년간 헌신한 것”이라며 “결혼 사진과 대학 졸업장 등을 놔두고 선교지로 간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은 것이고, 결국 그 가방은 잊혀지게 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선교지로 갔다는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가방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은 지하창고 속 선교사의 가방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화 홍보를 위해 LA에 체류 중인 김 감독은 사실 목사다. 그가 목사이면서 영화 제작에 열정을 쏟는 것은 영화가 한편의 설교 이상으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되고 한국에서 수요예매나 금요일기도회 시간에 영화 예배를 많은 교회에서 드리고 있다. 이미 남가주에서는 오렌지힐교회와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상영이 돼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김 감독은 향후 복음으로 치유 받고 있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주제로 한 다음 영화 BETEL(하나

님의 집, 스페인어)를 제작 중에 있다.

김 감독은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배 때 뿐만 아니라 주중 소그룹 모임에도 영화 상영이 이뤄졌으면 한다. 연락을 부탁한다”며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조금씩 후원을 해주신다면 다음 영화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잊혀진 가방’은 오는 3월 18일 파사데나장로교회 오후 3시 주일 예배 시간에 상영될 예정이다.

문의: 747-333-9522  
www.pio21.net  
토마스 맹 기자

## 한 알의 밀알 되어 제2의 헬렌 켈러 꿈꾼다

### 밀알 동부LA 토요일모임, 장애우들의 순수함에 오히려 은혜 받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애우 아이들에게 제2의 헬렌 켈러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이들.

2002년부터이니 벌써 10년이 됐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이 매주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에서 개최하는 동부LA지역 모임을 방문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풀러튼에 본부를 두고 활동 중이며 매주 토요일 LA, 어바인, 풀러튼, 토렌스, 동부LA 등 5곳에서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무료 데이터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중 동부LA 지역은 변미선

선생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박민수 간사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동부 지역에 사는 발달 장애우들이 대상이다.

가주남교회에서도 장애우를 담당하고 있는 박 간사는 “이 곳과의 인연이 10년 전”이라고 회고하며 “청각 장애우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 밀알선교단에서 수화를 배우게 됐고,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간증했다.

그는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들 모두 평일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러다 주말이면 휴일을 반납하고 이곳에 와 장애우

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장애우들이라 통제도 어렵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오히려 순수한 모습과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사역에 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매주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밀알의 사역은 자원봉사자에게도 큰 영향을 줘 어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서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지난번은 ‘나는 셰프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우 한 명과



선한청지기교회에서 밀알 장애우들을 위한 수업과 모임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뤄지고 있다.

### 장애우와 자원봉사자 한 팀 돼 “나는 셰프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한 명이 한 팀이 되어 요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하며 “재료 구입에서부터 만들기, 설거지까지 둘이 함께 해 자립심과 성취감을 갖게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매주 이 프로그램을 호

스팅하는 선한청지기교회에서도 주일 오전 10시에 장애우 예배가 열리고 있다.

문의: 714-522-4599  
빅터 박 기자

아 이 토크 비 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중앙일보/인턴넷 웹사이트(www.sxcnet.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 3개월 무료!

\*마지막 기회! 서두르세요!

지금 가입하시면, 3개월 무료! \*마지막 기회! 서두르세요!

최대 \$105 상당

행사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글로벌 플랜**  
Global Unlimited Plan

\$24.99 /월

기타 수수료 포함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 발신자 표시 가능, 착신전환 가능

**글로벌 플러스 플랜**  
Global Unlimited Plus Plan

\$34.99 /월

기타 수수료 포함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 까지 무제한 통화!

**무료 부가서비스**

- 휴대전화에서 매월 국제전화 500분 통화가능
- 한국 전화번호 제공\*\*

[30일 환불 보장]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개월 무료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합니다. 총 18개월의 계약기간이 있으며, 계약기간 내 서비스 액시시 위약금(\$59.99)과 보상 받으실 수 금액 한도 부과됩니다. 모든 프로모션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데이터로aming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액시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도2012에는 환불보조를 위해 준비 중인 대인 연인과 관련된 온라인 코너에서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00.875.8318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6시 ~ 저녁 10시 30분 (P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공식 가입센터 모집

한인마트네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8.7544 (동부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척추전문  
**자생 한방병원**

www.jasengusa.com



#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보건복지부지정 척추전문, 한방병원

**KCAL 9** 선정 **대체의학분야 대상**



**척추가 바로서야 성적도 바로선다**  
**수험생 척추 클리닉** **오픈기념**  
**무료 X-Ray 검진 및 상담**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  
한방 재활의학 전문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편집위원  
대표원장 **윤제필**

자생 척추건강 캠페인 홍보대사  
PGA 프로골퍼  
**최경주**

## 자생만의 양, 한방 치료 센터

### 척추, 관절센터

추나약물요법, 동작침법(MSAT), 추나수기요법

- 목, 허리 디스크 클리닉 • 턱관절 클리닉(TMJ)
- 오십견, 무릎관절 클리닉 • 청소년 척만증 및 성장 클리닉 • 수험생 클리닉

### 웰니스센터

- 난임 클리닉 (IVF 보조 프로그램) • 산전 산후 클리닉
- 힐링 다이어트 클리닉 • 한방 피부 클리닉

### 카이로 프랙틱센터

상경추 및 자세교정 전문 클리닉

## 자생한방병원 입원집중치료

통원치료에 아쉬움이 남으셨다면 담당 원장님과 상담하십시오  
자생한방병원 **한국분원**에서 **입원집중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추나약물치료와 추나교정치료
  - ✓ 체계적인 동작침과 봉침치료(미국러쉬대학병원 공동연구)
  - ✓ 일대일 운동치료 및 한방물리치료
- 입원치료 고객 항공권(대한항공, 아시아나) 할인구매 가능

## 수험생 척추 클리닉

수험생의 70%가 척추관련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진단부터 치료, 예방까지 한번에, 수험생척추클리닉의 토털케어서비스

1단계 : 양한방 공동검진  
정밀 검진 및 구조적 문제파악

2단계 : 집중력 향상과 평생척추건강 완성  
통증제거, 척추관절구조교정, 내과질환치료

3단계 : 집중력강화 솔루션  
집중력향상을 위한 처방 및 운동설계



**청소년기에 시작한 척추의 집중관리가 학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유해성분이 전혀없는 미국 FDA 등록된 한약을 사용합니다**

### 메디케어 환영, 교통사고 전문

이지초이스 HMO 지정병원  
직장상해, 여행자보험, 학생보험 및 각종보험 무료조회

## 자생한방병원 미국분원

- 양,한방 통합 치료센터 (한의학, 정형외과, 카이로프랙틱)
- 자생 디스크 치료약물 신바로메틴 미국물질특허 획득
- 자생 동작침법(MSAT) 미시간주립대와 공동연구 진행
- 한국 자생한방병원에서 직접 파견한 의료원장 상주
- 한국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치료와 동일한 시스템



플러튼 메인분원



LA 분원



20여명의 전문 의료진과 스텝

### 샌디에고 분원

**858)752-1815**

5222 Balboa Ave, Suite 73  
San Diego, CA 92117

### LA 분원

**323)677-4900**

5901 W. Olympic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36

### 플러튼 분원

**714)773-7000**

1950 Sunnycrest Drive, Suite 2000,  
Fullerton, CA 92835

### 산호세 분원

**408)645-8232**

2858 Stevens Creek Blvd, Suite 208,  
San Jose, CA 95128

**초진상담비 무료쿠폰**  
"본 쿠폰을 가져오시면  
초진상담비를 무료로 해 드립니다."